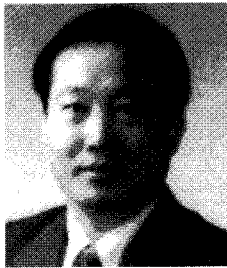


노계도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자



윤 승 호
(거흥양계 상무)

산란게 경영에 있어서 실제 사업의 처음이 초생추 또는 중추의 입식이라면 노계도태는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계사를 청소하고 소독을 한 후 입추시기와 품종 등을 신중히 고려해 병아리를 입식하고 각종 백신을 접종하고 세심하게 길러내어 성계로 만들어 놓고 갖은 질병의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최대한으로 계란을 낳게 하다보면 어느덧 우리의 알 기계는 노후되어 도태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고창양계라는 부화장에 근무하면서 주로 병아리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전국의 사양가분들과 접촉해온 경험이 있는 바,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마지막 단계인 이 노계도태를 단순히 병아리를 새로 받기

위해 즉흥적으로 그 시기를 결정하거나, 거꾸로 노계를 도태한 후 서둘러 신규입추를 추진하는 등 실로 비합리적인 경우가 너무 많았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노계도태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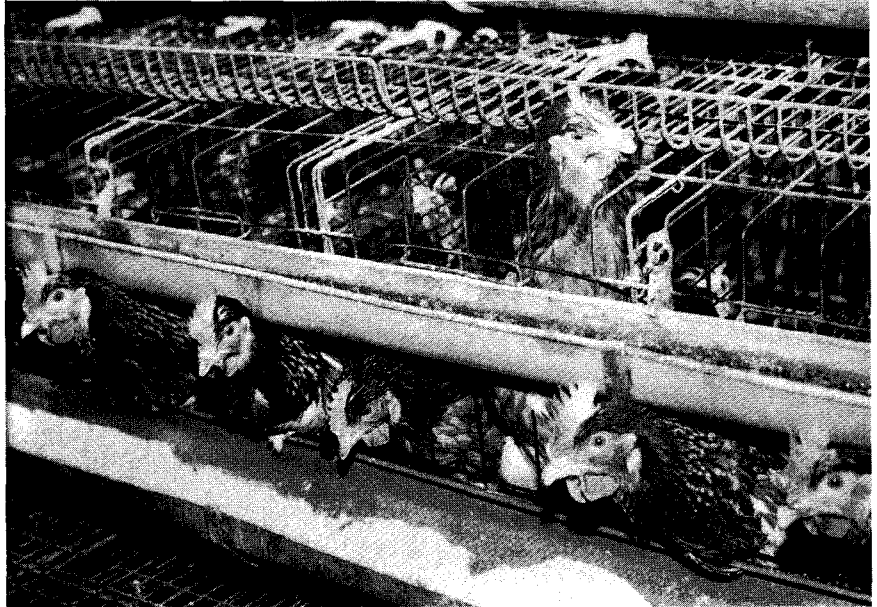
1. 노계도태의 시기 결정

노계도태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령, 산란율, 난가와 사료값의 비교, 난가와 노계가격의 전망, 신규 입식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갈수록 노계의 수요처가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지나친 저율질은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보는 수가 더 많아짐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닭 한 마리당 난가와 사료값의 차이가 10원이 날 경우 조금 더 끌고 갈 것인가 도태를 할 것인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달 뒤 노계값이 300원 떨어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한달동안 계분만 생산한 꼴이 되고 그 만큼 신계 입식이 늦어지는 경과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상당함을 대부분의 농가들은 계산하지 않는 우를 범하기 쉽다.

가장 간결한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난가가

나쁠 때는 노계값이 금방 회복될리가 없으므로 남보다 신속히 노계군을 도태하고 다음 신계를 기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난가가 좋을 때는 노계값도 좋은 경우가 많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계의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고 또 도계



장의 비축분이 있는 겨우도 많고 수입육이 들어올 가능성도 언제나 잠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좋은 노계값을 실현시키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되어지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임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노계도태는 우수하고 믿을 만한 중추 등 신계 입식 계획을 가장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하여 주의 깊게 조사하여 확정시킨 다음 그 계획일자 전에 충분히 청소하고 소독할 시간을 확보하여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다음 신계의 위생상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노계 도태 과정

노계 도태시기가 결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소위 소개상 또는 중추 입식업자들에게 노계도태를 위임하게 된다.

노계를 처리하는 도계장은 현재 다섯군데

의 회사가 있어 그 곳에서 도계를 하고 정육 발골 작업을 하여 소시지 공장 등으로 납품하게 되는데 갈수록 그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양계농가들도 알고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는다.

농장에서는 마리당 가격이 결정되지만 중간에 소개하는 업자는 도계장에 입고시킬때 총 중량을 체크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모자라는 중량만큼의 감액분쟁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결제도 도계장에 따라 다르지만 어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자금부담과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과 해당 농장의 물량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늘 발생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간에 거래를 알선하고 유통과정을 대행하는 소개상의 존재는

양계장으로서나 도계장으로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계를 도태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도 완전한 출하와 대금 회수를 단순한 구두상의 약속보다는 문서화된 계약서에 입각하여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시키는데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정책 제안

잘 아시다시피 병아리 한 마리가 입식되면 약 6개월 후부터 1년동안 250~300여개의 계란이 국내에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계 한 마리를 예정보다 한 달 먼저 도태하면 적어도 한달간 20개의 계란 생산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신규입식이 열(10)만큼 중요하다면 노계도태도 다섯(5)만큼은 양계경영과 난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는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노계가격을 100원, 200원 더 받기 위해 노계를 환우계로 파는 산란 농가는 크게 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업계의 불황에 그 만큼 기여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 혼자만이라도 더 받기 위해 환우계를 위한 노계 출하는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아 있는 닭이 농가에서 농가로 전국적으로 이동되는 사실이 질병전파에 얼마나 나쁜지 모르는 농가는 없을 텐데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에 전국으로 질병은 퍼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않는 양계농가는 없겠지만 실제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함과 무력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 기회에 업계 전체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나 하나의 실천이 전체의 개선에도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든

양계농가들이 가져 줄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노계를 구매하고 도계처리를 하는 도계업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양계농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난가가 떨어지면 노계도태 의뢰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난가가 조금 회복되는 듯하면 갑자기 노계도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극심한 공급



의 불균형으로 인해 서로가 애를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 흐름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그렇다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손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산란농가들도 앞서 설명한 대로 계획적인 입추일정에 맞춰 그에 따른 계획성 있는 도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도계장 역시 안정적인 노계공급을 위해 일정 가격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산란농가의 노계도태에 기여하는 호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노계도태의 불균형과 노계가격의 폭락과 도태 지연,

그에 따르는 난가의 폭락 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정부와 협회는 무엇보다도 이 노계도태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 적극적인 노계의 소비창출과 노계비축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00만개의 계란수매 비축보다 10만수의 노계도태가 난가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계산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와 도계장이 혼연 일체가 되어 안정적인 공급과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회와 정부는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노계소비 대책과 유통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는 산란업계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양계**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한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한다.
3. 사용 용량을 반드시 지킨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한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지킨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는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한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인다.
9.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한다.
이 기록은 시장출하와 치료시에도 필요하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인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움을 청한다.